



2026. 8. 20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헌희 kunhee.kong@meritz.co.kr

## News

## 금융당국, 은행별 목표치 배분협의 돌입...이달 내 마무리 목표

연합뉴스 <https://zrr.kr/J8S07p>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확대한 데 따라 이달 내 은행별 목표치 배분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확대 방침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유보분 총량 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해, 금융회사별 총량 관리 목표치에서는 제외

## 은행권, 예보로 부담 年 9000억 늘어나나...예보, 요율 인상 추진

이태일리 <https://zrr.kr/5aoNx9>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등에 맞춰 18년 만에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현재 0.08%인 은행의 예보료율이 0.13%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은행의 예보료(1조4600억원) 납부액에 적용하면 연간 9100억원을 추가 부담

## 조정장에...은행 ETF 판매, 한 달 새 83% 급감

한국경제 <https://zrr.kr/A847E8>

4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의 7월 ETF 판매액은 총 1조9160억원으로, 6월보다 83.1% 줄었고 지난해 12월(1조4643억원) 이후 7개월 만에 1조원대 판매액을 기록  
증시 투자심리가 급격히 가라앉은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양상으로, 증시 투자자예탁금 및 은행 요구불예금이 감소하고 자금은 예금으로 대거 이동

## 내일부터 국민銀 퇴직연금서 ETF 당일 매도·매수 가능

한국경제 <https://zrr.kr/XAALwW>

국민은행이 최근 퇴직연금 계좌에서 당일 ETF 매도·매수 방식을 뒷받침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함에 따라 20일부터 당일 매도·매수가 가능  
은행이 증권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당일 매도·매수에 뛰어들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증권사들 '몸집 불리기' 가속...커진 자본, 수익·리스크 시험대

머니투데이 <https://zrr.kr/af7ehl>

국내 증권사들의 호실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자본으로 쌓이는 가운데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확충까지 이어지면서 자기자본이 불과 반년 만에 최대 20% 가까이 증가  
커진 자본을 기반으로 IB 확대, IMA 등 새로운 사업에 나설 수 있지만 자본 증가 속도에 걸맞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본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

## 거래 89% 급감했는데...“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탄력 조정 검토해야”

이코노미스트 <https://zrr.kr/MaERkq>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이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90% 가까이 급감한 가운데, 투자자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  
사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

## 남부 1000mm 물폭탄에 車 1700대 침수 '날벼락'...손해액 '145억' 돌파

경기일보 <https://zrr.kr/FbnTCB>

최근 남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손보사의 차량 침수 피해 손해액이 145억 원 수준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10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피해 접수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 손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

## '1200%를 풍선효과' 예상 빚나가나... 연금·저축보험 대체판매 쉽지 않은 이유

보험저널 <https://zrr.kr/gsyfHJ>

1200%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이 보장성보험의 대체 상품으로 거론됐지만 실제 판매 확대는 제한적인 모습  
규제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보험사에는 신계약서비스마진(CSM)과 사업비, GA에는 판매수수료가 상품 판매를 결정하는 더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

## SEC "증권 등록없이도 최대 1000억원 토큰 펀딩"

이태일리 <https://zrr.kr/MgR4gU>

SEC가 가상자산 발행사가 별도의 증권 발행 등록 없이 연간 최대 7500만달러를 조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 토큰을 증권법 밖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상자산 규정'을 제언  
피어스 위원은 이번 규정이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포괄하지는 못함을 인정하면서, 향후 규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가상자산 업계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 유로 스테이블코인 몸집 키운다...서클 'EURC' 4억유로 고지 넘었다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Dvf02s>

서클의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C' 유통량이 출시 4년 만에 4억유로를 돌파  
달러 기반이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유로를 블록체인상에서 보관·이체하려는 기관과 결제업체, 개발자 중심으로 유로 기반 결제 인프라도 점차 영역을 넓히고 있는 모습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